

SěAH



친환경 종이와 공기를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세 아 가 조

VOL. 396 NOVEMBER • DECEMBER 2021

SěAH

세 아 가 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BEAUTIFUL

NOVEMBER • DECEMBER 2021

2021 11 + 12

세아가족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발행일 2021년 12월 20일(통권 396호) 발행인 천정철 발행처 세아홀딩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기획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02 6970 0093

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사진 Studio KENN ISSN 2636-1787

*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BEAUTIFUL

아름다운

故 이운형 회장은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변하지 않는 철의 겸손한 마음을 세아의 슬로건에 새겼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뜻은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져 세아가족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다.

Contents

04

프롤로그
세상을 아름답게

06

스토리
2022년의 ESG

12

세아 특집 인터뷰
안전과 환경에 진심을 더하다
세아베스틸 안전환경팀 김응수 팀장

18

스페셜 뉴스
한눈에 보는 세아 2021년

22

나눔세아
재원자에게
따뜻한 마음을 선물해 주세요

26

세아 포커스
세아홀딩스, 산업디지털전환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28

세아를 만드는 사람들
세아가족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세아홀딩스 인사지원팀

34

글로벌 리포트
글로벌 위기에 선제 대응하는 민첩함으로
세아스틸비나(SSV)

38

에코 패밀리
지구까지 행복한 메리 에코 크리스마스!
생목(生木) 트리 만들기

42

가치의 재발견
몸은 멀리 있어도 파티는 즐겨야 하니까
코로나 시대의 파티

46

세아 뉴스
& 사우 동정

48

내동소
& 사보 기자

〈세아가족〉은 세아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세아가족〉에 소개할 만한 세아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부서, 화목한 세아 가족을 추천해 주세요. 또한 상담이 필요한 고민거리나 자랑하고 싶은 반려동물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세아가족〉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이유진 수석 / yujin.lee@seah.co.kr / 02 6970 0093

세상을 아름답게



“철과 같은 마음은 어찌 보면 굉장히 겸손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변하지 않거든요. 세아에 대한 의미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하는 기업을 만들자고.”

故 이운형 회장은 세아 어디에나 사용되어 인간을 돕고 있지만,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세상의 근본이 되어 주는 철의 의미를 세아의 슬로건에 새겼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뜻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져 세아가족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다.

2022년의 ESG

고대권 사회혁신R&D기업 이노소셜랩 대표

2021년을 관통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키워드는 단연 ESG였다. 혹자는 ESG를 기존의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 창출) 바람처럼 잠깐의 유행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한편 그 반대의 흐름도 있다. 경영 변화, 경영 전략의 내용들을 ESG라는 표현 안에 담아 마치 ESG가 경영의 새로운 수식어인 것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어떤 식의 이야기이든, 공통점이 있다. 이제는 ESG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은
결국 기업의 발목을 잡고
주주가치를 훼손하게 됩니다.

ESG의 개념과 의미

ESG는 E(Environmental: 환경), S(Social: 사회), G(Governance: 지배구조)의 약자이다. 사전적인 도입 취지는 기업의 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이전처럼 매출과 손익 등 재무적 요소에만 치중하지 말자는 것이다. 투자사와 평가사들의 오랜 경험에 의하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재무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같이 고려해야 장기적으로 투자 리스크가 적다. 아래의 문장은 이러한 견해를 보충 설명한다.

“기업들이 스스로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어 목적의식의 정립과 이해관계자 관리의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서신을 통해 강조한 바 있듯이, 기업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폭넓게 이해관계자



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만 장기적인 이익 달성이 가능합니다. 가격을 무분별하게 인상하는 제약회사,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는 광산 기업, 고객을 존중하지 않는 은행 – 이러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목격되었듯,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은 결국 기업의 발목을 잡고 주주가치를 훼손하게 됩니다. 반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헌신하는 기업은 고객들과 더욱 끈끈하게 소통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¹⁾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 Lock)의 래리 핑크(Larry Fink) CEO가 2021년 연두 서한을 통해 각 기업의 CEO에게 보낸 내용의 일부다. 위의 서한에서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 있다.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은 결국 기업의 발목을 잡고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대목이다.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은 불법적인 행동, 위법적인 행동, 편법적인 행동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이다.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은 모호한 표현이지만, 이 모호함을 이유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할 기업활동의 미래 기준선을 ‘불법, 위법’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앞으로의 시대는 이러한 행동들에 대한 사회의 대응이 관행 같진 않을 것을 암시한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잘 정의해야 할 이유가 있다.

ESG를 넘어 ESG 현상에 주목하자

지금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첫째, 세대가 바뀌고 있다.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세대,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이루었던 세대가 모두 새로운 세대의 비판을 받으며 밀려나고 있다. 사회가 MZ라 호명했던 세대, 그리고 MZ 이후의 알파세대는



1) 출처: www.blackrock.com/kr/larry-fink-ceo-letter



경제성장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합리에 적극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 세대는 '지속가능성장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선 세대가 부의 창조를 위해 약탈한 자원과 환경, 제도적인 민주화를 이루며 심화되었던 역설적인 불평등을 극복해내야 하는 당사자 세대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두 번째 현상을 주목하게 된다. 바로 글로벌 주도권의 정렬이다.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 개발 목표), 지속가능경영, 탄소중립, ESG가 하나의 흐름으로 정렬하고 있다. 예컨대 SDGs는 목표가 되고 탄소중립은 목표로 가기 위한 척도가 되고, 지속가능경영은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거기에 ESG는 이에 대한 부스터가 되고 있다. 기존에 하나의 흐름으로 정렬되지 않았던 계획들이 지금은 정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왜냐하면 세 번째 변화 때문이다.

최근의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다. 탈분권화되면서 이합과 집산을 반복하는 미디어와 기술은 기존의 전통적인 권력, 즉 기성의 언론이나 권력 구조를 조롱하거나 무력화시키곤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와 기술은 앞서 언급했던 새로운 당사자 세대와 적극적으로 결합해 그들의 장난감이 되기도 하고 무기가 되기도 하며 학습 도구가 되기도 한다. 새로운 세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들의 정렬, 기술과 미디어의 재편 가속화는 순환의 사이클을 그리며 강화되고 있다. 이 사이클을 읽어내지 못하는 기업은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ESG의 목적에 대해 사고하기

그러므로 ESG의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ESG의 목적은 단순히 평가를 잘 받자는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본다면 평가를 잘 받으려는 일련의 단기적인

목표 하의 경영이 장기적인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시대적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준비해야 할 ESG경영의 내용은 과거의 지속가능경영에 가깝다. 기업의 밸류체인을 점검해 지구와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감소시키고 좋은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철학, 전략, 행동을 내재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의 지속가능경영을 뛰어넘어야 할 부분도 있다. 바로 '숫자로 말하기'다. 과거의 지속가능경영은 지속가능 보고서에 홍보성 문구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 특히 평가사나 투자자들에게 지속가능경영의 성과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일 년에 한 번의 보고서가 아니라 공시를 통해 E, S, G에 관한 이슈들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 부분이 지금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각종 ESG 위원회와 ESG 실무팀이 주목해야 할 부분도 이 부분이다. 기존에 기업의 경영전략에 통합되지 않았던 지속가능경영을 기업의 핵심전략과 통합하고 이 의도와 효과를 숫자를 통해 입증하는 것. 2022년을 준비하기 위한 착수의 지점이 여기에 있다. ♡

고대권

사회혁신R&D기업 이노소셜랩 대표. 비영리조직의 영향력 강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행,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섹터 간 협력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한다. 『저성장 시대의 CSR 전략』의 공동 저자.



안전과 환경에 진심을 더하다

세아베스틸 안전환경팀 김응수 팀장



지난 6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과 관련해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일이 있었다. 세아베스틸의 슬래그로 해양 오염 우려가 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세아베스틸의 입장을 충분히 합당한 근거와 겸손한 말투로 전달했던 김응수 팀장. 그 방송을 통해 그의 지식과 진심이 오롯이 전해져 국민과 환경 단체가 오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아베스틸에 몸담고 있는 30여 년간 안전과 환경에 진심을 다해온 김응수 팀장의 이야기.

기준보다 더 엄격한 환경보호 전문가

글로벌지속가능투자리뷰(GSI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세계 전체 운용 자산의 36%인 40조 5천억 달러(4경 5,481억 원)가 ESG를 목표로 투자되고 있다. 현재 많은 돈이 ESG에 몰리고 있고, 전 세계는 한목소리로 ESG를 외치고 있다. 그 흐름에 세아만 예외일 수 없다. 철강 제조업 특성상 급변하는 시대 흐름과 환경 기준에 걸맞은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김응수 팀장은 세아베스틸의 안전과 환경을 담당하며 ESG와 관련한 업무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관련 분야 30년 경력의 안전환경 전문가다. 안전환경팀은 크게 안전, 환경, 소방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해당 분야에 적합한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친환경 안전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규와 국제 협약 등 국내외 요구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사전 대응을 하느라 분주하다.



통합환경 사업장 전환을 통해
세아베스틸과 정부, 환경 전문가가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자원고갈에 대응하는 기업의 환경 경영활동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역시 2050년 탄소 중립, 환경 사고 등의 대외적 이슈 발생 및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법적으로 환경규제 강화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팀은 이러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여 왔다. 특히 철강 산업이 통합환경대상 업종으로 포함됨에 따라 2021년 말까지 통합환경 인허가를 승인받아야 했다. 그래서 안전환경팀은 2019년부터 전 공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부터 집진시설 전수조사 및 배출량 영향분석을 진행하는 등 통합환경 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제도 유예기간인 2021년 말보다 이른 올 9월,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 인허가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김응수 팀장은 세아베스틸의 환경관리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판단한다.

“통합환경 사업장 전환을 통해 세아베스틸과 정부, 환경 전문가가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기업에는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또한 규제와는 별도로 사업장 자체 배출허용기준을 만들어 공장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허용기준의 30% 이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단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보호가 아닌, 사업장 자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걸맞은 오염물질 배출만 자체 허용한다니 안전환경팀의 환경에 대한 노고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1
김응수 팀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틈틈이 설비 점검에 힘쓴다.

2
새만금 슬래그 관련한 환경단체의 오해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모두 새만금의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곤 같다고 생각한다.

3
세아베스틸은 환경부 규제보다 더 까다로운 자체 기준을 세워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상 사원, 이준영 사원, 명승호 대리, 김응수 팀장

슬래그는 친환경 부산물임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서두에 언급했던 지난 6월의 새만금 슬래그에 대한 환경 단체의 오해에 대해선 그도 아껴둔 말이 많다. 지난 수년간 슬래그의 자원 순환을 위해 연구에 매진한 세아베스틸의 노력이 왜곡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군산과 새만금의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세아만큼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좋게 생각하고 있다. 새만금은 군산지역만 영향권이 아니라 국가에서 관장하는 중요 핵심 위치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이해 관계자 등 모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혹시 잘 모르고 있을 세아가족들을 위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부탁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공사 조성 부지에 도로 보조 기층용으로 사용된 슬래그는 금속 용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입니다. 고철과 함께 투입된 석회석 등의 잔여 물질이라 할 수 있어 주성분이 시멘트나 건축토목용으로 사용되는 천연 골재와 유사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철강 생산국에서 슬래그를 친환경 자원 순환 제품으로 인식하고 천연자원 대체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의 슬래그는 공인기관의 엄격한 검증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했다. 게다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슬래그 성분분석 및 용출시험 결과 문제없음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단체에서 우려를 제기한 것처럼 바닷물에 금속 성분 용출에 대한 문제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세아가족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슬래그에 대해 정확히 숙지해주는 것만으로도 김응수 팀장님과 안전환경팀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작지만 큰 보상이 되지 않을까.

안전 환경도 디지털 혁신 중

팀이름처럼 환경에 관한 업무만큼이나 안전 업무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를 점검하는 것 외에도 임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 업무에 힘쓴다. 그가 지금까지 해온 다양한 형식의 교육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느꼈던 것은 ‘10분 안전보건교육’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정기교육은 분기별로 6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매번 긴 교육 시간으로 일부 직원들이 힘들어했던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전 교육을 진행할 수 없을까’하는 고민을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10분 안전보건교육’을 고안해 냈다.

“현재 세아베스틸에서는 관리감독자 주관하에 근무 시작 전 10분간 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집약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 직원들의 집중과 참여도가 높아졌고 안전의식 향상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총괄 기장과 기장 중심의 현장 문화 조성을 위해 스마트워크센터를 주축으로 출퇴근 시간 30분을 활용하는 모바일 비대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상시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혁신은 세아베스틸의 안전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아베스틸에 도입 중인 첨단 안전 시스템 에버가드도 그중 하나다. 세아베스틸은 공장 규모가 커 안전보건 관리자와 관리감독자가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는지 일일이 모니터링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때, 에버가드 시스템의 공장 내 카메라 센서가 근로자들을 상시 인식해 안전 보호구를 미착용했거나 불안정한 행동을 할 때, 위험구역에 진입할 경우 즉시 경보를 울려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일부 공장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안전 효과가 뛰어나 근로자들 대다수가 시스템에 만족한다는 평이 많다. 또한 공장 내 드론을 상시 운용해 사람이 접근해 모니터링하기 힘든 고소작업 안전상태와 환경오염 물질 유출 여부 확인을 위한 고지대 드론 순찰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하다는 흔한 말 한마디가 주는 큰 힘

안전환경팀은 다른 부서와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관한 준수 사항을 요청하고 지키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많다. 그 때문에 안전

4
슬래그는 금속 용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주성분이 천연 골재와 유사한 천연자원 대체재다.

5
안전과 환경이 최고인 회사라는 자긍심으로,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세아베스틸’이 되는 것이 그가 그리는 미래의 세아의 모습이다.

환경팀은 ‘잔소리 많고 귀찮은 부서’라는 인식도 존재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과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에 감사함과 칭찬을 듣기가 어려운 팀이기도 하다. 그래서 김응수 팀장은 다른 사람에겐 사소하고 당연한 말일 수 있는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보람을 느낀다. 최근 부서별 현장 순찰 시 “현장 및 여러 부서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였다. 소소한 곳에서 보람을 찾는 김응수 팀장. 그런 그가 세아의 안전과 환경에 대해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세아베스틸은 안전과 환경이 최고인 회사라는 자긍심을 갖고 직원 모두가 ‘안전 제일’, ‘환경 제일’에 공감하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세아베스틸’이 되는 것이 미래의 세아, 그리고 안전환경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일차적인 목표는 현재 일부 시험 운영 중인 에버가드 시스템의 전 공장 도입과 근로자가 무의식적인 행동에도 안전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업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이 안전환경팀의 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무의식의 안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멀리 보면 환경 면에서 철강사를 대표하는 친환경 사업장으로 거듭나는 것과 통합환경관리체제를 통해 ESG 경영과 2050 탄소중립 등 대외적인 이슈에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임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친환경 사업장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이다.

안전환경팀 사무실 파티션 위엔 빨간색 회전 경광등이 있다. 작업장 내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환경팀과 경비실에 요란한

사이렌과 함께 경광등이 울린다. 팀원들이 사이렌이 울리면 황급히 현장에 출동한다. 그리고 김응수 팀장은 퇴근 후 올리는 전화에 회사 번호가 뜨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했다. 안전환경팀 사무실의 경광등이 다시는 울릴 일이 없고, 김응수 팀장이 퇴근 후 회사에서 전화 올 일이 없는 날이 올 때까지 세아베스틸의 완벽한 안전 시스템이 곧 갖춰지길 기대한다. 그리고, 안전과 환경에 30년간 진심을 다하고 있는 김응수 팀장과 안전환경팀의 힘찬 2022년을 함께 응원해본다. ☺



한눈에 보는 세아 2021년



세아홀딩스, 산업디지털전환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지난 11월, 세아홀딩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에서 국내기업 최초로 산업디지털전환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세아홀딩스가 수상한 산업디지털전환 부문은 혁신적인 디지털전환을 달성한 기업을 선정해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격려하고자 올해 새롭게 신설된 분야다. 세아홀딩스는 '10년 뒤 세아그룹의 테크 회사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주력 계열사들의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머신 비전을 이용해 그동안 해왔던 단순 반복 작업 제거를 가능하게 하여 실제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에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고열 전기로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온도를 측정하는 작업을 협동 로봇이 수행하거나

공장 내부를 360도 뷰 기반으로 재구현해 상황 시뮬레이션을 하는 기술을 시범 적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글로벌 디지털 혁신 사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세아홀딩스의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캠프'가 지속 가능한 내부 디지털 전문가 양성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세아창원특수강, 아람코와 사우디에 최초의 STS 무계목강관 합작법인 설립 확정

세아창원특수강은 아람코가 대주주인 사우디산업투자공사와의 대규모 합작 투자를 통해 사우디 최초의 스테인리스 무계목강관과 튜브의 현지 생산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합작법인이 안정적인 매출 판로를 확보해 중장기적으로 세아그룹의 중동지역 철강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임에도 세아가족의 부단한 노력과 열정으로 각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낸 한해였다. 급변하는 디지털 세상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고, 사우디나 영국 등과 손잡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해 내기도 했다. 세아의 성장뿐 아니라 ESG나 CSR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활동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2021년 뉴스를 짚어보았다.



세아씨엠, 컬러강판 사업 강화

세아씨엠은 올해 초부터 알루미늄 컬러강판을 현대자동차 포터2 전기 특장차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세아씨엠의 알루미늄 컬러강판 복합패널은 가벼우면서도 탁월한 평활성, 내화성, 전기절연성 및 단열성 효과가 뛰어난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어 앞으로 친환경 신소재로서의 역량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세아씨엠은 3CCL 증설을 통해 고급 컬러강판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연간 컬러강판 생산 능력은 현재 2개 라인 22만톤에서 내년 하반기 3개 라인 30만톤까지 확장될 예정이다.

신성장동력 사업 확대

세아는 올해 활발한 신성장동력 사업 확대 행보를 보였다. 세아제강지주는 영국 현지에 해상풍력발전 하부구조물인 모노파일 생산 공장 건립 및 설비 구축을 위한 투자를 단행했다. 모노파일 생산 판매 법인 세아윈드를 영국에 설립했고, 덴마크 오스테드로부터 혼시3 프로젝트에 공급될 모노파일을 수주하기도 했다.

한편, 세아베스틸도 대만 최대 해상풍력 전문 파스너업체로부터 해상풍력 발전기에 사용되는 파스너 제품의 특수강 소재 약 5천톤을 수주했다.

세아창원특수강 같은 경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기업 최고경영자 모임인 수소기업협의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세아창원특수강은 세아항공방산 소재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공동으로 항공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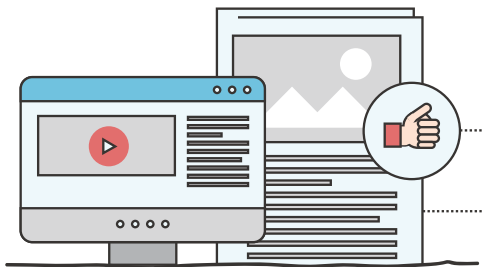
세아는 해외 거점 확대를 통해 시장 개척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세아제강지주는 해상 풍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영국 세아윈드를 설립하여 현지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한편, 세아베스틸은 인도 세아글로벌인디아와 일본 세아글로벌재팬을, 세아창원특수강은 중국 세아CTC를 설립하여 해외 법인을 활용하여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



제품 마케팅 강화

세아에서 제품 마케팅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올해에도 계속됐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스테인리스 선재를 소재로 가공한 마봉강 제품의 포장 차별화를 통해 수요자들의 국산·수입산 제품 혼동 및 혼용을 방지하고 국산 제품을 적소에 공급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세아씨엠은 알루미늄 프린트강판을 활용한 설치미술 전시회를 개최했다. 설치미술가 김광우 작가와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통해 산업용 소재로만 인식되던 알루미늄 프린트강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고급스러운 컬러와 세련된 패턴을 예술 분야에 접목해 그 우수성을 선보였다.

Special News 2021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활동 강화

세아제강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노사 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노사협의회와 간담회 시행 등을 통해 노사 간 신뢰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올해 한국노사협력대상에서 중소·중견 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세아제강은 탄소 감축 또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등 녹색 산업 관련 용도로만 쓸 수 있는 ESG 채권을 발행하여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 설비 증설과 운영에 사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ESG 가치 창출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등 ESG 전담 조직 신설은 물론 컴플라이언스실을 신설했다. 현재 세아에서는 임직원들의 ESG 가치 및 컴플라이언스 내재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그룹 ESG 경영 선포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활동 전개

세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CSR 활동을 전개했다. 올해 3월, 세아이윤문화재단에서는 국내 클래식 공연이 연이어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오페라를 사랑하는 예술가들과 관객들을 위해 비대면 공연을 진행했다. 이에 수많은 관객이 온라인 중계를 통해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음악회를 관람할 수 있었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부담을 고려해 선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장학생을 선발해 언택트 방식으로 장학증서 수여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그 외에도 세아는 2015년 겨울부터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그룹 공동 나눔 캠페인을 진행해왔고, 올해에도 중증 장애를 가진 재원이(가명)를 도울 예정이다.

재원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선물해 주세요



한 작가는 환자복을 입고 걸어가는 사람조차도 둘이 함께 걷는 뒷모습엔 쓸쓸함이 묻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차가움과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것은 가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픈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 따뜻한 가족을 느껴보지 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조기에 의지해 매일 홀로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재원의 뒷모습이 더는 쓸쓸해 보이지 않도록, 지난 7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세아가족의 따뜻한 품으로 보듬어주면 좋겠습니다.

1
다칠 염려가 있는 재원이는 24시간 3교대로 선생님들이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 조금 먼 거리는 작아진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 이동합니다.

2
혼자 걸어가는 재원의 모습이 더는 쓸쓸해 보이지 않도록, 세아가족이 따뜻한 마음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세상에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는 재원이

재원이(가명)를 만나러 가던 날은 햇살 좋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이 좋은 가을날, 아름다운 계절을 한껏 누리지 못하고 실내에 있을 재원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세아가족의 후원을 통해 몸에 맞는 휠체어와 보조기를 선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부러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던 홀트일산요양원에서 재원이를 만났습니다. 13살 재원이는 첫 눈에 보기에 또래 친구들보다 키가 많이 작았습니다. 세아가족 촬영팀을 만나자 보석같이 크고 예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떨구는 모습에 마음이 아렸습니다.

재원이는 출생 직후 발이 안쪽으로 휘는 병인 내반족과 손가락 이상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며 양발 모두 깁스를 한 상태로 새로운 가족과 만나기 위해 2009년 홀트아동복지회에 입양의뢰 되었습니다.

이다. 이듬해인 2010년에는 내반족으로 양쪽 아킬레스건 절제술을 받았고, 2011년엔 뼈가 잘 부러지는 골형성부전증과 정신 기능이 점차 퇴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뇌 위축, 발달 지연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원이는 위탁 가정의 보살핌을 받으며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홀트일산요양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적장애로 분류되어 보장구 지원에 어려움

골형성부전증은 특별한 원인 없이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선천성 유전질환입니다. 지속적으로 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성장을 마친 뒤에도 키가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골절로 인해 성장판을 다치면 양쪽 뼈가 다르게 자라 다리 길이에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재원이 키가 또래보다 한참 작은 것도, 걸을 때 불편한 것도 모두 이 때문인 듯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재원이는 학교 가는 시간을 가장 기다립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너무 좋아하고 학교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몇 해 전 친구들과 놀다 살짝 부딪혔고 뼈가 으러져 큰 수술을 받은 이후로는 또 그럴까 두려워 그저 앉아서 바라보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에 돌아와서도 친구들이 뛰어다니거나 조금이라도 위험할 것 같으면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텔레비전을 봅니다. 방과 후 수업도 참여하고 싶지만, 학교 후 진행되는 치료 일정으로 참석할 수가 없어 더욱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앉아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는 움직여줘야 근육이 퇴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골형성부전증의 증상 중 하나로 재원이 눈 흰자위가 푸른 증상이 있습니다. 워낙 예쁜 눈을 가지고 있어 푸른빛을 띠는 게 신비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병의 증상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병의 증상 중 하나로 사춘기가 지나면 청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양원에서는 재원이 병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건강을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도록

홀트일산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은 기아(棄兒)로 발견 되었거나 가족과 연락이 두절되고 중증 장애로 인해 평생 시설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원이 역시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재원은 짧은 거리는 천천히 혼자 거동할 수 있지만 다칠 위험이 있어 24시간 선생님들이



3
친구들이 뛰어다니거나
조금이라도 위험할 것
같으면 재원은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니다.

4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 기형이 생기지
않도록 발목 발 보조기와
특수 깔창, 특수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적
장애로 분류된 재원은
보조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교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골형성부전증은 뼈 뿐 아니라 신체 전반의 근육까지 저하시킵니다. 특히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기형이 생기지 않도록 성장에 맞춰 주기적으로 발목 발 보조기를 제작해 보행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보조기를 착용할 경우 특수 깔창과 특수화도 함께 신어야 합니다. 작은 넘어짐이나 부딪힘에도 크게 다칠 수 있는 신체 특성상 이동을 위해 휠체어도 필요합니다. 재원이가 사용하던 어린이용 휠체어는 이제 재원의 몸에 꼭 끼어 더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원은 장애 유형이 지적장애로 분류되어 있어 발목 발 보조기와 특수화, 휠체어는 전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모두 고가의 장비인 탓에 장애 수당 등 정부 예산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연말연시를 기대하는 요즘입니다. 따뜻하고 화목한 우리 가정 밖을 둘러봐 주세요. 태어나 가족의 따뜻함도 느끼지 못하고, 불편한 몸을 작은 보조기와 몸에 맞지 않는 휠체어에 의지해 힘겹게 생활하고 있을 재원이를 생각해 주세요. 큰 도움도 없지만 쓸쓸한 성탄과 연말연시를 보낼 재원이를 생각하며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정성을 모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엔 재원에게 <세아가족>이 따뜻한 마음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나눔세아〉 재원이 후원 방법

QR코드 후원

1. QR 코드를 찍어 나눔세아 사이트 접속
2. '후원 종류' 선택 후 '후원자 정보 입력'
3. '후원금 결제' 클릭

지정 계좌 후원

국민은행
479037-01-017335
(사)홀트아동복지회

나눔세아 사이트 바로가기



-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금 입금 날짜에 따라 2021년 혹은 2022년 영수증으로 발급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 홀트아동복지회 계좌로 직접 후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홀트아동복지회 나눔협력팀 (02-331-7145) 또는 withholt@holt.or.kr 메일주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 지정 계좌 후원 시 보내는 이 앞에 '세아'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금 영수증 발급 외에 전반적인 캠페인이 궁금하시면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에 문의해 주십시오.



세아홀딩스, 산업디지털전환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2018년부터 세아홀딩스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스마트팩토리 프로젝트가 드디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에서 국내기업 최초로 '산업디지털전환'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은 것. 세아의 모든 계열사를 디지털 혁신으로 이끌고, 나아가 우리나라 철강 산업을 선도할 세아홀딩스의 디지털 혁명에 관해 알아보자.



급변하는 시대를 선도해온 세아의 패거

반세기가 넘는 긴 시간 동안 세아는 건전하고 견실한 경영을 통해 단단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와 동시에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부단한 노력도 함께 진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화두에 걸맞은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드디어 그 공로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25일 코엑스 아셈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이 열렸다. 이 행사에서 세아홀딩스는 국내 기업 최초로 '산업디지털전환'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은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및 산·학·연간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마련된 국내 대표 행사다.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아홉 번째를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기술사업화 시상식을 통해 우수 기관 및 기업을 선정하고 그 공로를 치하해 왔다. 올해 새롭게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 부문은 혁신적인 디지털 전환을 달성한 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세아홀딩스가 국내기업 가운데 초대 수상 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디지털혁신팀의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세아홀딩스는 2018년부터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공정 솔루션 구축을 위해 IoT, 빅데이터 등 해당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인 '디지털혁신팀'을 운영해 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력 계열사들의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다. 실제로 세아홀딩스는 '10년 뒤 세아그룹의 테크 기업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동안 사람이 해왔던 단순 반복 작업을 기계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세아창원특수강의 열간 단조 작업 시 머신 비전을 이용해 소재의 길이와 두께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아베스틸에선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라이다 기술을 적용해 소형부강 샘플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도 도입하게 되었다. 제품 수량을 자동으로 셀 수 있는 머신 비전 모델을 개발해 수작업으로

수량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것도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의 성과 중 하나다.

현재 세아베스틸의 1,700도 고열 전기로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온도를 측정하는 작업을 협동 로봇이 수행한다. 또, 공장 내부를 360도 뷰(View) 기반의 3D 환경으로 재구성한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세아창원특수강에 시범 적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글로벌 디지털 혁신 사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세아홀딩스의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캠프(Digital Camp)'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내부 디지털 전문가 양성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또한 빅데이터·AI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인수를 통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¹⁾ 전문법인 VNTG를 출범시킨 점과 철강뿐 아니라 건설과 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의 안전 솔루션을 개발한 것 등도 수상의 영광에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슬기롭고 힘차게 디지털 혁신으로 도약하다

세아홀딩스 천정철 대표이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을 통해 AI 머신비전 등을 활용한 철강 산업의 디지털 전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으로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철강 제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이루어져 국가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만 6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세아는 다양한 시대의 역경을 이겨내며 꾸준히 성장해왔다. 디지털 혁신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지금, 세아는 또 한 번 슬기롭고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앞으로 철강 산업의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세아의 행보를 기대해보자. ☺

1) 기업에서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CT)을 플랫폼으로 구축 활용하여 기존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것

세아가족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세아홀딩스 인사지원팀

인사지원팀은 회사와 직원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직원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사측의 의견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또한,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해 세심한 업무 처리와 신중함이 요구된다. 특히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대비하느라 온 팀원이 초긴장 상태였던 것은 말하지 않아도 세아인 모두가 짐작하고 있을 터.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 인사지원팀의 이야기를 전한다.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코로나19 상황에도 항상 <세아가족> 메인 사진만은 마스크를 벗고 진행해왔다. 단 한 컷만이라도 세아가족들에게 얼굴 보이고 밝게 인사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칼럼은 메인 사진도 마스크를 쓰고 촬영했다. 팀원들이 '세아가족들에게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가이드하는 팀이 인사지원팀인데 저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촬영할 수는 없다'라는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회사와 임직원의 중간에서 모범을 보이고자 하는 팀, 바로 인사지원팀이다.

지주사의 인사지원팀답게 세아홀딩스뿐 아니라 그룹사 전체의 다양한 HR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이운상 팀장이 이끄는 인사지원팀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이운상 팀장은 그룹 공통의 인사뿐 아니라 특정 계열사의 이슈나 도움 요청에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종종 팀원들에게 “나도 팀장이 처음이라...”며 겸손히 이야기하지만, 개개인과 면담을 자주 하며 팀원을 보듬



는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소속과 직급 불문하고 누구의 이야기든 경청하며 최선의 방법을 같이 찾는 자상한 리더다.

세아창원특수강에 입사해 5년 전 세아홀딩스로 자리를 옮긴 안덕중 수석은 전반적인 인사제도의 기획·운영과 보상·평가 업무를 진행한다. 남들보다 항상 먼저 준비를 시작하는 덕분에 새로운 과제가 나올 시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어요”라며 “쫀!”하고 자료를 내밀어 팀원들을 감동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팀의 살림꾼이자 술선수범의 아이콘이다. 이상근 수석은 그룹 내 HR 컴플라이언스, 인권경영 기획 및 모니터링, 세아홀딩스 소통협의체(HALLS) 운영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ESG 경영이나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그를 찾는 세아가족들이 더 많아졌고, 코로나19 대응 업무도 겸하고 있어

저희 팀이 존재하는 이유는
임직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특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룹 교육을 담당하는 황혜정 수석은 근무지나 직급과 관계없이 세아의 모든 직원과 만나 소통하고 있다. 다양한 세아인들을 만나는 덕분에 사별, 부서별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계발해야 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다. 또한 세아홀딩스 인사지원팀에서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해 새로운 팀원이 들어올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는 터줏대감 역할도 하고 있다.

팀의 막내 정숙경 사원은 세아홀딩스의 복리후생과 연차관리, 급여 등 전반적인 HR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룹 HR로서는 해외주재원 관리, 과장급 승진시험 진행, 그룹 인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중이다. 경력사원이지만 팀의 막내다 보니 아직은 운영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며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일하는 중이다.

이렇게 모인 다섯 명은 각자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십분 발휘해나가며 세아홀딩스뿐 아니라 세아그룹 전체를 더욱더 좋은 회사가 되도록 묵묵히 노력하는 중이다.

신중함과 세심함, 사명감으로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 특히나 세심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 그중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둘지 궁금했다. 세아그룹의 직원들을 가장 많이 만나고 소통하는 황혜정 수석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저희 팀이 존재하는 이유는 임직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모든 구성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드는 동시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의도치 않게 오해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의견도



2



3

1
인사지원팀은 항상
신중함과 세심함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숙경
사원, 이상근 수석,
안덕중 수석

2
이운상 팀장은 팀원은
물론 본인의 도움이
필요한 세아의 모든
임직원의 이야기를 경청
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는 팀의 리더다.

3
황혜정 수석은 그룹
교육을 담당하는 덕분에
사별, 부서별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계발해야
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는 교육 전문가다.

많이 듣고 신중하게 소통하려고 합니다.”

다른 팀원들 역시 인사지원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세심함과 신중함이라는 의견에 적극 동의했다. 그런데 본인이 하는 행동이 전 사의 모든 직원에게 영향을 미쳐, 언행에 신중을 기하려면 부담감이 크지 않을지 우려되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힘든 만큼 보람 있는 일들도 많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운상 팀장은 가까운 예로 백신 휴가를 꼽았다.

“5월 말부터 시작해 6월에 백신 휴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편안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적절한 휴가 일수를 정해야 했어요. 또한 생산 현장에도 가이드를 줘야 해 부담이 컸습니다. 팀원들과 고심했고, 빠르게 움직여 적절한 시기에 합리적인 기간의 휴가를 정한 것 같습니다. 각 사업장이 위치하는 지역사회에서 세아가 선제적으로 도입했고, 구성원의

건강에 대한 회사의 배려로 받아들여져, 애사심이나 회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숙경 사원도 말을 이었다.

“세아홀딩스가 반반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루 8시간이니 2시간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휴가를 드리는 것이죠. 이 제도는 하루를 0.25단위로 쪼개야 하니 인사지원팀으로서는 번거로운 점도 있지만, 사원들의 반응이 무척이나 좋습니다. 지방에 집이 있는 직원이 계셨는데 금요일 오후에 반반차를 쓰시면서, 20년이 넘는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큰 도움을 받는 제도라며 애사심도 높아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이럴 때 큰 보람을 느끼죠.”

제도와 직원들의 접점에서 그 반응을 직접 느꼈던 정숙경 사원. 뿌듯한 얼굴로 이번 반반차 제도에 대한 사원들의 반응을 전하며 보람 있던 기억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4
인사지원팀은 팀원끼리 소통하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왼쪽부터) 안덕중 수석 이운상 팀장, 황혜정 수석, 정숙경 사원, 이상근 수석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다

세아홀딩스는 올해 조직개편이 단행되었다. 인사지원팀도 팀 명칭이 변경되어 구성원들의 더욱 나은 조직 생활과 근무 여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층 깊이 고민하며, 그 역할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사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특히 올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인사지원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의 소회는 어떨까. 코로나19 상황을 전달했던 이상근 수석에게 질문을 던졌다.

“예상보다 오랜 기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됐잖아요. 그로 인해 일과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임에도 가족과 동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예방지침을 준수해주신 세아가족, 그리고 각 사의 안전환경 및 인사담당자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세아가족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그룹 내 최소 규모 확진과 95% 접종률(2021년 10월 19일 기준) 등 정상적인 업무환경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 수석이 2021년을 마무리하자 팀을 이끄는 이운상 팀장은 2022년 계획을 전했다.

“저희 인사지원팀은 최근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HR로 적극 대응하여 그룹과 세아홀딩스 경영에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제 ESG 경영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 중 사회 부분에 해당하는 각종 제도 기획 및 보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사람과 관련된 환경은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대와 가치관의 차이로 HR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를 위해 저희 팀은 직원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한 HR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 대응하는 민첩함과 조직 문화에 대한 포용력. 이러한 것들이 인사지원팀의 기본 덕목이고, 그 기본을 지키는 일에 힘쓰고자 세아홀딩스의 인사지원팀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인사만사(人事萬事). 알맞은 인재를 적절한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리고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다. 인사철이든 흔히 거론되는 이 말은 너무나 식상하지만 그만큼 시대를 초월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는 세아가족과 관련한 모든 일을 다루는 인사지원팀 업무의 고단함과 중요함이 묻어나는 말이기도 하다.

인사팀에는 올해와 내년엔 경사가 겹쳐 있다. 올해는 안덕중 수석이 학부모가 되었고, 정숙경 사원은 결혼했다. 이상근 수석은 사랑스러운 딸 쌍둥이를 얻었고, 내년엔 황혜정 수석이 예쁜 딸 출산을 앞두고 있다. 모든 세아인들과 소통하는 세아홀딩스 인사지원팀의 겸경사가 2022년엔 세아가족 전체의 경사로 퍼져나가길 기대하며 즐거운 인터뷰를 마쳤다.☺

인사만사(人事萬事).
알맞은 인재를 적절한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리고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다.



글로벌 위기에 선제 대응하는 민첩함으로

세아스틸비나(SSV)



글. 세아스틸비나(SSV) 김철규 부장

베트남에서 보내온 편지가 도착했다. 코로나 19로 야간 통행과 도시 간 이동이 금지되어 약 3개월간 공장 내에서 생산부터 식사·취침을 모두 해결하고 있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세아스틸비나. 그들의 씩씩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동남아 최고의 강관 제조 전문 업체

Xin chào, Rất vui được gặp bạn!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아스틸비나(이하 SSV) 김철규 부장입니다. 저는 2002년 세아제강 포항공장 생산팀에 입사해 15년간 생산기술팀과 기술연구소에서 설비 개선, 신규 투자, M&A 실사 및 조업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8년 API, 후속 전문공장인 소정1공장 공장장을 거쳐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SSV 공장 운영 전반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SSV는 베트남의 경제수도 호찌민에서 30km 떨어진 동나이성에 있습니다. 1995년 사이공스틸파이프로 합작법인을 설립, 투자 라이선스 취득 후 1998년 동나이성 비엔호아 지역에 제1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오다 2005년에는 100% 지분인수를 통해 2006년 현재 세아스틸비나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2019년에 연작 지역에 연간 10만 톤 규모의 제2공장을 준공, 동남아 최고의 강관 제조 전문 업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SSV는 2020년 판매량 기준 수출 70%, 내수 30%로 수출 비중이 다소 높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여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SSV만의 차별화된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며 그 경쟁력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나라, 베트남

세계의 언어 중 가장 많은 6성조를 가진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나라이자 거리에서 공안을 볼 수 있는 공산국가. 길에선 수많은 오토바이 행렬을 만날 수 있고 지폐에 엄청난 숫자(최고 단위 50만 동)를 볼 수 있는 나라,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역사·문화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끔 유년 시절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듯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나라의 1980년대로 돌아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반도에 위치하여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민족과 언어를 잃지 않았고 가족·친지들과 함께 생활하며 어른을 공경하는 유교적 문화가 우리와 유사합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며 수저를 사용하는 식습관과 한자문화권이라 단어의

70%가 한자에서 유래했기에 동질감이 느껴지는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면이 많지만, 우리와는 다른 문화 때문에 ‘아차!’ 싶었던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부임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의 일입니다. 현지 직원이 업무상 큰 실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가르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저의 설명을 듣다 말고 갑자기 팔짱을 끼고 말을 듣고 있기에 좀 건방지고 무례해 보여서 혼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베트남에서는 팔짱을 끼는 경우는 미안하고 할 말이 없으며 그 상황을 인정하고 수긍한다는 의미로 팔짱을 낀다고 하더군요. 많이 미안했습니다.

힘들었던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코로나19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청정국가로 인정받던 베트남이 4월 말부터 시작된 4차 대유행으로 하루 평균 2만 명에 육박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동을 불허하는 통행금지령과 도시 간 이동금지령을 발효했습니다. 게다가 생산, 식사, 취침을 공장 내에서 해야 하는 이른바 3현장 정책까지 기업들에 요구했습니다. 낙후된 의료시설, 낮은 백신 보급률, 무분별한 코호트 격리 등. 7월 중순 시작된 3현장 정책이 기약 없는 연장을 되풀이하면서 많은 교민이 베트남을 떠났습니다. 또한, 많은 FDI 기업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회복 불능 상태에서 문을 닫거나 야반도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SSV 역시 3현장 정책을 따라 회의 테이블에서 잠을 잤고 화장실 한편에 호스를 연결해서 샤워 시설로 사용했습니다. 식량 공급이 원활치 않아 라면과 즉석밥으로 끼니를 매우



세아스틸비나 김철규 부장

기도 했으며 코로나 신속 항원검사를 매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도 SSV는 합심해 이겨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우리는 이 생활에 적응하게 되었고 우분투(UBUNTU: 아프리카 반투족 언어로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의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웃을 수 있는 경험과 추억, 하지만 다시 하라면 절대 못 할 것 같은 소중한 기억으로 마음 한구석에 남겨두었습니다.

현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발이 쑹쑹 묵었던 호찌민을 비롯한 남부 주요 도시들은 빗장을 서서히 풀고 있으며, 시민들의 일상도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위드 코로나로 가기에는 여전히 위험한 점이 많지만, 더 이상의 봉쇄는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부는 팬데믹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통제를 해주어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법규를 준수하며 다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위기를 경쟁력 강화 기회로

돌이켜보면 코로나19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SSV는 수년간 축적된 비즈니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 빠른 선제 대응 시나리오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세아의 재산과 위상을 지켜내며 큰 피해 없이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힘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었던 것은 변영길 법인장님을 비롯해 두동규 과장, 지구용 과장, 천현욱 팀장 등 우리 주재원들의 하나 된 마음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세아라는 든든한 공동체의 지원과 힘든 상황에도 묵묵히 각자 자리를 지켜준 법인장님과 주재원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기 극복에만 전념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빠르게 바뀌는 글로벌 경쟁 구도에 민첩한 대응도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SSV가 맞닥뜨리고 있는 글로벌 위기와 경쟁은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는 고객사의 요구 조건에 민첩한 선제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례로 저희가 수출하고 있는 미국 물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미국위생협회(NSF) 기준은 특히나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SSV는 여러 차례의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통해 최적의 생산조건을 수립해 지난 1월 NSF 인증 마크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물 산업 분야의 신규 고객사에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코팅·나사·단척 제품 등 다양한 고객사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상황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그로 인해 우리 세아인들이 더욱 단련되고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다가올 2022년은 전 세계 세아가족 모두가 즐겁고 건강하게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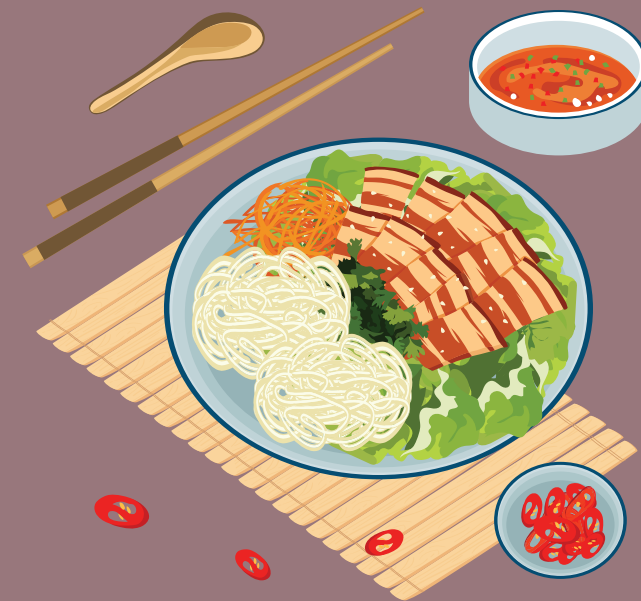


현지 사무실 내부 전경



코로나19로 베트남 3현장 정책이 시행돼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김철규 부장이 추천하는 베트남 음식



Bún Chả

분짜

베트남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쌀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쌀을 이용한 요리가 다양합니다. 저는 이중 분짜를 추천합니다. 분짜(Bún Chả)의 분(Bún)은 국수를, 짜(Chả)는 기름진 돼지고기를 의미합니다. 이름 그대로 숯불에 구워낸 돼지고기 완자와 야채를 새콤달콤한 국물에 적셔 먹는 쌀국수입니다. 돼지갈비 맛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 입맛에도 잘 맞는 편입니다. 하노이에서 처음 먹기 시작하였으나, 이젠 베트남 전역의 노점이나 간이음식점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대중 음식이 되었습니다. 먹는 방식은 가계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노이는 고기와 야채 등을 소스와 모두 섞어 먹지만 호찌민은 찜을 싸서 먹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민트·바질·고수 등을 곁들여 다양한 방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해 입맛이 없을 때 부담 없이 입맛을 돋워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요즘엔 한국에도 판매하는 곳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즐겨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지구까지 행복한 메리 에코 크리스마스! 생목(生木) 트리 만들기

세아씨엠 판매기획팀 김용하 과장 가족



이번 호 에코 패밀리는 딸바보 아빠 김용하 과장과 그의 똑 부러지는 열 살 딸 예린이가 주인공이다. 아내와는 대학 시절부터 오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터라 추억이 많지만, 예린이와는 단둘이 오붓한 데이트를 즐긴 적 없어 데이트를 신청했다는 김용하 과장. 딸을 바라보는 눈빛에도 꿀이 똑똑 떨어지는 아빠와 말 한마디 한마디 사랑스러움이 묻어나는 외동딸과의 알콩달콩 생목 트리 만들기 과정을 공개합니다!

다정한 아빠와 천진난만 딸의 첫 트리 만들기

“저희 아빠는 항상 자상하고 다정한 친구 같은 분이예요. 평일엔 함께 산책도 하고 주말엔 운동도 같이하며 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랍니다. 하지만 고쳤으면 하는 점도 있어요. 제가 아끼는 맛있는 과자만 골라 저 몰래 몽땅 먹어버리시거든요. 그럴 땐 아빠가 알뜰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아빠가 정말 좋아요!”

천진난만하게 아빠를 소개하는 예린이 덕에 입꼬리가 사르르 올라간다. 예린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빠 김용하 과장은 입사 7년 만에 정들었던 영업팀을 떠나 올해부터는 판매기획팀의 기획파트에 몸담고 있다. 새로운 업무를 경험하면서 열정 가득한 동료들과 즐겁게 일하고 있다. 바쁜 일정이지만 딸과 오붓한 추억을 위해 에코 패밀리를 트리만들기에 도전했다.

“예린이는 예쁜 얼굴만큼이나 마음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저희집 외동딸입니다. 어엿한 숙녀가 되어가고 있는 예린이는 달리기와 배구가 취미인 날쌔돌이입니다. 주말마다 아빠와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요, 아직 예린이가 이긴 적은 없지만 아빠를 이기는 그날까지 끈기 있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예쁘게 마음도 깊고, 운동까지 잘하는 예린이. 소개하는 아빠 눈에 사랑이 가득 담겨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세 가족. 원래 부녀만 오기로 했는데 아내 배정순 씨도 함께였다. 김용하 과장이 사연을 설명했다.

“사실 예린이랑 둘이 데이트를 하고 싶기도 했고, 아내가 쑥스럽다고 하기도 해서 저랑 예린이만 촬영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장모님이 갑자기 ‘아니, 우리



예린이가 엄마 없는 아이도 아니고 왜 아빠랑 둘만 사보에 나오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말씀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해서 아내와는 사진 촬영만이라도 같이 하려고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딸과 단둘이 보내려던 아빠의 오붓한 데이트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리고 준비된 재료가 두 개뿐이라 엄마는 트리 만들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동행한 것 만으로도 예린이 행복은 배가된 모양이다.

트리 만들기가 시작되자 거침없이 척척 만드는데 예린이. 고사리손으로 어쩔 이리 잘 만드는데 심지어 아빠가 잘하지 못하는 것도 도와준다. 손끝도 야무지다. 전구 장식의

1
환경을 보호하고 바다를 깨끗이 지켜 어른이 되면 넓은 바다로 나가 건강하고 멋진 고래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예린이와 아빠 김용하 과장.

2
손이 야무진 예린이는 혼자서도 척척 트리 만들기를 해나갔다. 본인 것을 먼저 끝내고 아빠의 트리를 도와주기도 하는 야무진 딸이다.



3



4

예린이가 밝고 예쁘게,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올곧은 아이로 커가는 것은 이렇게 반듯한 아빠와 엄마 덕분이 아닐까.

긴 줄이 꼬여있는 채로 받았는데, 먼저 척척 풀고 아빠 줄까지 풀어줄 정도였다. 집에서 트리 좀 만들어 봤을 것 같은 모습인데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아빠는 제가 10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트리를 사주거나 함께 만들어 주지 않으셨어요.”

질문자가 민망할 정도의 솔직한 대답에 또한 한 번 미소가 지나간다. 오늘 처음으로 트리를,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빠와 함께 꾸미니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고 기쁘다는 예린이. 예쁘고 멋진 트리를 만들어 할아버지와 할머니, 삼촌과 사촌 언니들까지 모두 초대해서 꼭 자랑할 거라는 귀여운 포부도 잊지 않는다.

건강한 바다를 지키려는 가족의 노력

오늘 김용하 과장과 예린이의 트리는 더글러스 소나무와 측백 생목(生木)으로 만들었다. 플라스틱 장식은 최소화하고 자연에 무해한 나무 화분에 솔방울과 나무 열매 등 천연 재료로 장식했다. 여기에 말린 레몬을 걸어주어 보기에다 좋을 뿐 아니라 소나무와 어우러져 좋은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생목 트리를 만든 이유는 크리스마스 시기에만 쓰이고 버려지는 트리와 장식 쓰레기들은 지구를 괴롭히는 주변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트리나 카드에 장식되는 반짝이는 바다와 토양을 오염 시켜 동물들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한다.

예린이는 모래를 밟으며 폭풍 발자국을 만드는 것도, 사랑살랑 파도를 타며 수영하는 것도 재미있어 바다를 좋아한다.

“최근에 『고래를 삼킨 바다 쓰레기』라는 책을 읽고 슬픈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친 흔적이 없는 고래 사체가 발견되어 해양생물학

자들이 원인을 알아봤더니 고래 배 속에 플라스틱과 비닐 등 쓰레기가 잔뜩 들어있었대요.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서 불쌍한 고래가 비닐봉지를 해파리로, 플라스틱 장난감을 물고기로 착각해 잘못 먹고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 책을 보고 예린이는 우리가 꼭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도 생활하면서 배출되는 쓰레기들이 결국 바다까지 오염시킨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래서 이런 바다 동물들을 지켜주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꼭 넓은 바다로 나가 긴장하고 멋진 고래를 예린이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아빠 김용하 과장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환경문제에 접근했다. 코로나19로 외식을 하지 못해 배달 음식을 종종 시켜 먹었는데, 적은 양의 음식이 불필요하게 많은 플라스틱 일회용품으로 포장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씁쓸했다고. 그래서 가정 내 분리배출이

라도 철저하게 하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분리배출하고 있다. 아내 배정순 씨 역시 배달 음식은 지양하고 직접 조리해 먹는 경우가 많다. 일회용 물티슈보다는 걸레나 행주를 사용해 생활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도 함께한다. 그리고 예린이네 가족은 대형 마트에 걸어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물건 구매를 줄이고, 자주 걸어 다니게 되어 온 가족이 자연스레 산책하며 대화할 기회도 많아져 좋다. 이렇게 예린이가 밝고 예쁘게,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올곧은 아이로 커가는 것은 이렇게 반듯한 아빠와 엄마 덕분이 아닐까.

올겨울에는 예린이 가족처럼 생목 트리에 도전해보자. 곳곳이 형식이 아니더라도 올마나 아라우카리아, 측백나무 화분에 바로 장식하는 것도 좋다. 플라스틱 나무 쓰레기만 줄여도 이번 크리스마스가 지난 뒤 지구는 한결 행복할 테니까. 그리고 예린이의 예쁜 두 눈에 맑고 푸른 바다와 건강한 고래를 담을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질 테니까 말이다. ☺

3

더글러스 소나무와 측백 나무에 솔방울과 나무 열매, 말린 레몬으로 장식해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했다.

4

예린이는 『고래를 삼킨 바다쓰레기』 책을 읽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5

김용하 과장과 예린이가 만든 생목 트리. 왼쪽이 예린이, 오른쪽이 김용하 과장의 작품이다.



5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시켰다. 그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화한 것은 단연 '단절' 일 것이다. 가까이 있듯 멀리 있든, 사람들 간의 접촉은 금기시됐고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게 미덕이 된 사회가 됐으니 말이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형태로 변화할 뿐.

몸은 멀리 있어도 파티는 즐겨야 하니까 코로나 시대의 파티



오프라인 안 되면 랜선에서 모이지 뭐!

2020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처음에는 모두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몰랐지만, 이 시간이 2년 동안 유지되다 보니 사람들은 저마다 코로나 시대의 생존법을 강구하고 있다.

'코로나블루'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사람들 간의 단절은 많은 사람에게 우울감을 안겨주었다. 직접 얼굴을 마주 보고 소통할 수 없는 시대에 고립감과 단절감은 더욱 깊어만 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에 우리 삶이 그저 잠식당할 수만은 없는 일. '이가 안 되면 잇몸으로'라는 생존 의식이 발동한 것인지 사람들 사이에는 '오프라인이 안 되면 랜선에서'라는 사고방식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덕분에 사람들은 랜선에서 수다를 떨고 랜선에서 회식한다. '랜선 수다'라고 해서

90년대 천리안이나 하이텔을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진보했으니까. 진보된 버전의 '랜선 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넷플릭스 파티'다. 이는 구글 크롬(Chrome)에서 제공하는 확장 동기화 프로그램으로, 지인들과 원격으로 넷플릭스를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이다.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우측 채팅창을 통해서 실시간 대화도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크롬 브라우저 혹은 넷플릭스 사이트에 접속해 '넷플릭스 파티'를 설치한 후 원하는 콘텐츠를 재생하고 해당 URL을 파티원에 공유하면 된다.

'랜선 회식'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신인류에게 떠오르는 문화 중 하나다.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팀원들끼리 서로 얼굴 볼 일이 적어지자 랜선으로나마 팀워크를 다질 수



있도록 시작된 새로운 개념의 회식으로, 각자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컴퓨터 앞에 두고 줌 등의 화상회의에 접속해 각자의 공간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일부 회사에서는 랜선 회식을 권장하며 각 팀원에게 회식비를 제공하기도 한다.

밖에 나갈 수 없다면 집에서 즐기자

대면할 수 없는 직장 동료와 친구들이 랜선으로 모였다면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과 룸메이트 혹은 가까운 지인과는 홈파티로 돈독해지는 문화가 생겨났다. 외식보다 집에서 식사하는 자리가 많아지면서 각 마트 혹은 유통업체는 홈파티족을 위한 다양한 밀키트를 제공하고 있다.

오투기는 코로나 시대에 넷플릭스와 같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작년과

올해 혼술을 즐기는 사람이 코로나 이전보다 상당 부분 증가한 것에 착안해 집에서 OTT를 즐기며 풍성하게 혼술을 즐길 수 있도록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와 냉동 피자 등을 선보인 것이다.

GS더프래시는 위드코로나 정책이 시행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에서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파악, 가족 및 가까운 지인과 부담없이 홈파티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밀키트 제품을 내놓았다. 실제로 올 11월까지 판매된 밀키트 매출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 30.2%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CJ 역시 홈파티 족을 겨냥해 'CJ쿡잇' 밀키트를 선보이고 있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가족과 외식하는 듯한 색다른 기분을 만들 수 있고 지인들과의 홈파티에서도 그럴듯한 음식을 선보일 수

있도록 파스타, 찹스테이크, 쿡팻퐁커리 등 다양한 음식을 밀키트로 출시했다.

코스국에는 연말 파티도 다르다

올해 코스국의 연말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첫 번째 연말을 보냈다. 두 번째 연말을 앞둔 지금, 사람들은 각자만의 개성대로 코스국 연말 파티를 위해 벌써부터 준비에 나서고 있다.

아무래도 크리스마스와 연말에도 홈파티가 대세인 만큼, 최근 호텔들은 크리스마스 케이크 주문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신라호텔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2월 한 달 동안만 판매하는 이색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선보였으며 롯데호텔은 레드벨벳 치즈케이크를 출시했다. 시그니엘 부산은 '크리스마스트리' 케이크를,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보물상자' 케이크를 선보여 가족 및 가까운 지인과 연말 모임을 앞둔 사람들이 색다른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연말에 '홈파티족'이 있다면 '캠핑 파티 족'도 있다.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소수의 지인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집이 아닌 캠핑장에서 크리스마스 혹은 연말 파티를 여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텐트 안에서 즐기는 캠핑뿐 아니라 차에서 즐기는 '차박'까지 다양한 형태의 캠핑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한 날을 보내는 모습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상당히 변화시키긴 했지만 그렇기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느낄 수 있기도 했다. 내년에는 과연 어떤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보다 더 나은 내년을 위해 올해는 가족 혹은 가까운 지인들과 홈파티로 더욱 깊고 친근한 연말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상당히 변화시키긴 했지만 그렇기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느낄 수 있기도 했다.



세아뉴스



| 세아창원특수강 | KAI와 공동 개발 항공 소재 선보여

세아창원특수강이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ADEX 2021(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국산 항공 소재를 최초로 선보였다. 기술연구소 이정훈 연구소장은 “국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기술의 바로미터 ‘서울 ADEX 2021’을 통해 KAI와의 공동 개발 중인 소재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당사는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과 고품질 소재를 바탕으로 항공뿐 아니라 반도체, 방위산업 등 더 폭넓은 분야에서 국산 소재 개발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세아특수강 | 사회 따기 행사

지난 11월 4일 세아특수강 충주공장 임직원들이 사회 수확 작업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충주 특산품인 사과를 세아특수강 충주공장에서 재배부터 수확까지 직접 관리해 더욱 뜻깊었다. 이날 수확한 사과는 구내식당 메뉴로 제공하는 한편, 타 사업장에도 전달해 비대면 시대에 멀리서나마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 세아M&S | 2022년 사업계획 확정 워크숍

세아M&S는 지난 11월 24일, 2022년 사업계획 확정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행사에서 팀별로 2021년 목표에 대한 실적 평가와 반성, 2022년 계획과 목표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마정락 대표이사는 강평을 통해, 회사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 글로벌 트렌드인 안전보건환경, ESG,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관리자가 솔선수범해 팀원들을 양성·코칭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아M&S 품질, 원가, R&D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회사의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우동정

세아제강

조의
김정철 생산2팀 (부친)
이경봉 생산1팀 (빙부)

세아베스틸

입사
오승용 안전환경팀

출산
박용우 1제강팀
송유창 단조생산팀

결혼
양승민 대형압연팀
서환수 제품연구그룹
김태광 기획팀

조의
두동현 1제강팀 (부친)
정진수 제강설비팀 (부친)
이흥근 마케팅전략팀 (부친)
김춘근 제강설비팀 (부친)
김종승 1제강팀 (모친)
이명상 2제강팀 (빙부)
안정원 1제강팀 (빙모)
이우 단조생산팀 (빙모)
송규환 소형압연팀 (빙모)
지태웅 품질보증팀 (빙모)
김용덕 대형압연팀 (배우자)

세아창원특수강

입사
김경민 선도기술연구그룹

결혼
정승호 업무지원팀
김병주 생산관리팀
김승우 대형압연팀
손영호 강관생산기술팀
손대성 회계팀

세아특수강

입사
오한솔 업무지원팀 (포항)
한진우 선재생산팀 (포항)
이동원 선재생산팀 (포항)
김정진 선재생산팀 (포항)
이동희 선재생산팀 (포항)
이동규 선재생산팀 (포항)
장준원 품질보증팀 (포항)
윤주호 품질보증팀 (포항)
하도현 품질보증팀 (포항)
손동근 안전환경팀 (포항)
오택진 안전환경팀 (포항)
이인환 설비팀 (포항)
유종환 기술전략팀
이의영 솔루션기획팀
김명제 선재영업팀
정진홍 봉강영업팀
권영광 재경팀
김가빈 품질보증팀 (충주)
곽범택 안전환경팀 (충주)

결혼
문진우 품질보증팀 (포항)

출산
정영훈 선재영업팀 (충주)
이현우 봉강생산팀 (충주)

조의
권용목 선재생산팀 (빙모)
박현모 기술전략팀 (배우자)

세아메탈

입사
한세현 안전환경설비팀 (창원)
고단현 품질혁신팀 (창원)

결혼
문재성 품질팀 (원주)
장태희 생산팀 (원주)

세아씨엠

출산
황정연 생산1팀
신상욱 1CCL

조의
김승모 1CCL (부친)
장인섭 컬러건재영업팀 (빙부)

세아M&S

입사
박기현 생산팀
박준영 설비관리팀

출산
최낙동 설비관리팀

세아 L&S

입사
안희강 업무지원팀

결혼
윤주용 안산영업소
장인태 경인영업팀

세아네트웍스

입사
곽대섭 솔루션사업팀

VNTG

출산
김우상 ERP팀

조의
김태현 ITP팀 (빙모)
최규성 Process Computer팀 (빙모)



내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내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를 사랑해주신 세아가족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아쉽지만 이 코너는 이번 호를 끝으로 이만 마무리 합니다. 대신 2022년 새해부터는 세아가족들의 이야기를
더욱 즐겁고 뜻깊게 나눌 수 있는 따뜻하고 재미있는 새 코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아윈드 운영팀 김진홍 대리

[반려동물 프로필]

종류: 치와와

이름: 모카(여자아이)

나이: 두 살

특기: 서전트 점프

취미: 옥수수 씹기

좋아하는 것: 우유, 고구마, 세상 모든 고기, 베프 옥수수

싫어하는 것: 물, 잘 때 건드리는 것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모카입니다. 큰 귀와 앙상한 팔다리가 매력적인 치와와예요. 워낙 작고 민첩하다 보니 날다람쥐 같다는 소리를 자주 듣지만, 저는 풀떼기보다 고기를 사랑하는 사나운 육식동물입니다.

제가 너무 작고 귀엽다 보니 사람들이 쉽게 다가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알아두셔야 해요. 전 사람도 강아지도 좋아하지만 먼저 다가오는 건 싫어합니다(단호). 저는 호불호가 강하거든요. 제가 허락하고 난 뒤, 그 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물어버릴지도 **몰라요. 대신 제가 허락한 인간**이라면 괜찮아요. 제 애교에 푹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만들 자신이 있거든요. 저는 재주도 많아요. 앉아, 엎드려도 구분할 줄 알고 앞으로 뒤로 돌고 점프할 줄도 알죠. 왼손 오른손도 따로 줄 줄 알고, **엄기가 총 쏘는 척하면 장단 맞춰서 쓰러져 주는 센스도 있습니다!** 대신, 맨입으로는 안 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고기를 가져오시면 보여드릴게요.

세아타워는 저에게도 **익숙해요. 근처 유치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엄마와 아침저녁 출퇴근길을 함께하다 보니, 이제 제 회사 같기도 해요. 거기 팀 사람들 회사 자리에 참여한 정도 있는데, 흠 그 사람들 나름 괜찮더군요. 안심하고 엄마를 회사에 보내도 될 것 같아요.



11+12월호 선물



비잇미 옥수수 장난감

SēAH

〈세아가족〉 사보 기자

세아제강지주(서울) 재경파트 안미경

세아제강(서울) 인사팀 한우경

세아제강(포항) 업무지원팀 이병준

세아제강(군산) 업무지원팀 강태현

세아제강(순천) 업무지원팀 장호영

세아제강(창원) 업무지원팀 정민수

세아제강(부산) 영남영업1파트 황미라

세아베스틸 · 세아창원특수강(서울) 기획팀 허지윤

세아씨엠(군산) 업무지원팀 채소영

세아특수강(서울) 재경팀 류상우

세아특수강(포항) 업무지원팀 김동기

세아특수강(충주) 업무지원팀 이상은

세아메탈(서울) 서울영업팀 김지영

세아 L&S(서울) 재경기획팀 고관수

세아 M&S(서울) 경영지원팀 최경민

세아항공방산소재(창원) 인사총무팀 정청용

세아네트웍스(서울) 경영기획팀 박솔향

브이엔티지(서울) EX실 장송이